다구를 찾아서 ㉑ 사모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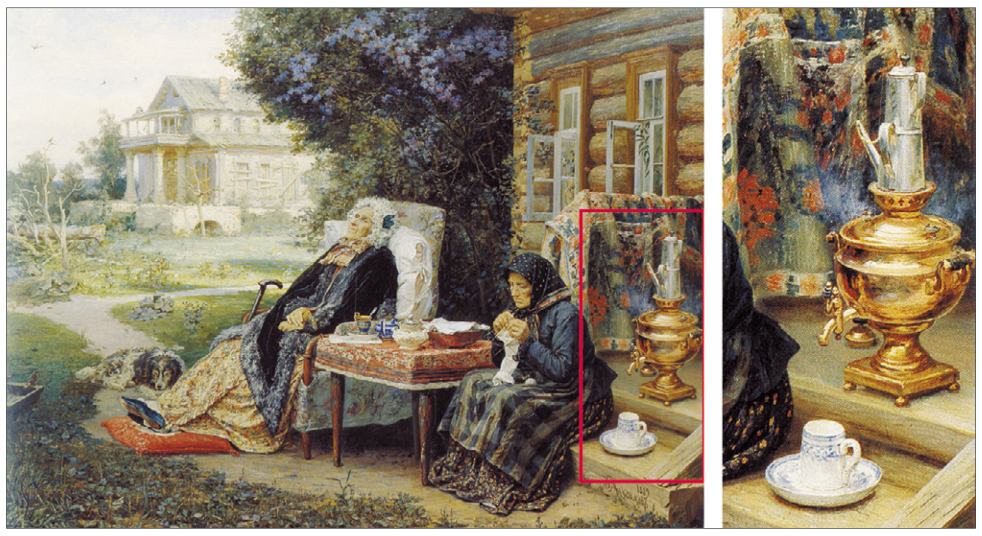
러시아인의 풍토성 그대로 반영

그림은 바실리 막시모프(Vasily Maximov, 1844~1911 러시아 이동(移動)파 화가)의 작품으로 19세기 러시아인의 홍차 마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현관 앞에 놓인 사모바르에서는 물이 끓고 있으며, 노부인은 홍차를 마시려는지 테이블 위에 설탕 단지와 그릇이 놓여있다.

홍차에 관해 말할 때 러시아를 빼놓을 수 없다. 러시아인들의 홍차 소비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기도 하지만 사모바르가 그들의 이런 풍토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모바르(самовар)는 직역하면 자비관(自沸罐), 즉 스스로 끓는 탕기라 말할 수 있다. 사모바르는 몸체 한가운데 있는 원통 안에 잘게 자른 나뭇조각을 넣고 불을 지펴서 몸체의 둘레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안쪽과 원통 사이의 공간에 채운 물을 끓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우리나라의 신선로와 비슷통상을 시작하면서 차가 러시아에 안정적으로 공급됐을 것으로 짐작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차가 들어온 초기에는 상류층에서만 마실 수 있는 값비싼 음료였다. 그래서 사모바르는 항상 여주인이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하는 사모바르는 언제나 깨끗하게 닦아서 광택을 내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점차 중국으로부터 차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난한 소작농의 집에서조차 차를 마실 수 있게 되자 사모바르는 그야말로 러시아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다. 그리고 사모바르는 러시아의 주변국인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으로 전래됐다. 특히 이란과 이라크에는 러시아식 홍차 마시는 방법이 그대로 전래돼 사모바르가 애용됐다.

러시아에서 홍차 소비가 늘어나면서 19세기 중엽부터 자국 내에서 차 재배가 시도된다. 흑해 연안에



바실리 막시모프(Vasily Maximov) 作. 캔버스 위 유화, 72×93.5cm. 모스크바 스테이트 트레차코프 갤러리(The State Tretyakov Gallery) 소장.

하다. 다른 탕기와 비교해보면 사모바르는 러시아의 기후에 가장 알맞게 개발됐다. 1년의 대부분이 겨울인 러시아에서 사모바르는 찻물을 끓임과 동시에 실내를 따뜻하게 데우는 훌륭한 다구였다. 게다가 그 모양이 아름다워 장식의 효과도 있었고 휴대도 가능했다. 사모바르는 붉은색 구리를 주재료로 만드는데 대부분 은으로 도금한다. 하지만 사모바르가 언제, 어디서 최초로 발명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톨스토이의 고향 뚤라에는 사모바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모바르 박물관이 있다. 뚤라에는 19세기 말까지 러시아 전역에 사모바르를 공급하는 공장들이 모여 있었다.

러시아로 차가 전파된 경로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설에는 이라크나 터키에 보급된 차가 아라비아 대상들에 의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에 의해 청나라와 러시아가 정식으로 위치한 그루지아에 처음으로(1847) 다원(茶園)이 만들어지지만 본격적인 차의 재배와 생산은 약 100년 후부터 이뤄졌다. 그 후 남쪽으로는 이란 국경 근처의 아제르바이잔에, 북쪽으로는 그라스노다르에 다원이 만들어져 1989년에는 약 12만 톤의 차를 생산했다. 하지만 소련의 해체로 인해 현재는 오히려 차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1917년 러시아혁명은 러시아인들의 생활양식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시켰다. 음다 역시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 이후 사모바르 공장은 사유에서 국영으로 그 소유주가 바뀌면서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군사용으로 제작됐다. 그리고 석탄이나 나무를 태우는 방식에서 전기를 이용해 작동하는 사모바르로 변하게 되면서 실용적인 용도보다는 장식적인 용도의 제품이 주로 만들어지게 됐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㊷ 청도 운문사(雲門寺)

소나무 숲길에 들어서자 개울물 소리가 발끝을 적셔왔다. 숲엔 나이를 물을 수 없는 소나무들이 법을 이은 부도처럼 의젓한 간격으로 서 있고, 그 숲길 끝에 풀 먹인 장삼처럼 운문사가 서 있었다.

7월의 태양은 뜨거웠다. 그늘 하나 없는 텃밭에서 대중이 울력을 시작했다. 강원에서 경전을 넘기던 손끝엔 뜨거운 밭고랑이 지나가고, 먼 산에 대고 소곤대는 도반의 이야기는 한 점 바람처럼 지나간다.

밭고랑엔 경전으로 읽을 수 없는 문자들이 있었다. 운문사의 텃밭은 또 다른 강원이었고, 뜨거운 밭고랑은 또 다른 경전이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 4도 칠보난순라망행수토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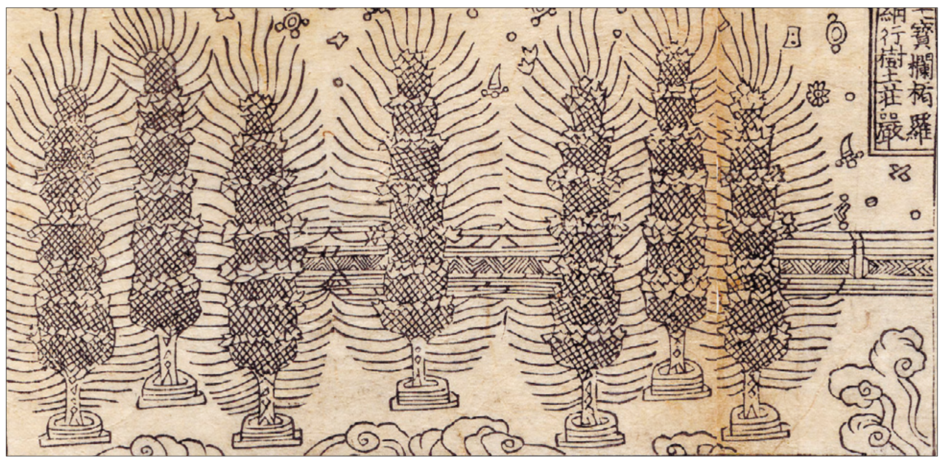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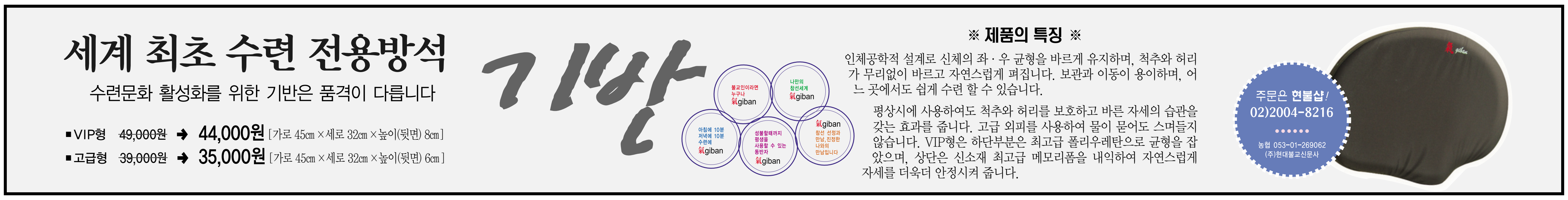
보물이 달린 일곱 그루의 가로수가 줄을 이어 극락을 장엄하고 있다. 가로수는 금, 은, 청옥, 수정 등이 그물에 싸여 칠층으로 이뤄져 있다. 가로수 뒤편으로는 난간이 표시돼 있으며, 네 가지의 보물들은 눈부신 모습으로 가로수의 뒷면에 광배로 표현돼 있다. "우사리불(又舍利佛) 극락국토(極樂國土) 칠중난순(七重欄楯:극락국토에 있는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널빤지) 칠중라망(七重羅網: 극락국토을 장식하고 있는 그물, 구슬을 꿰어서 일곱 겹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칠중행수(七重行樹: 극락국토의 보배로된 가로수, 일곱 겹으로 줄을 지어 서 있어서 이렇게 부른다) 개시사보(皆是四寶) 주잡위요(周帀圍繞) 시고(是故) 피국(彼國) 명위극락(名爲極樂)."

본문의 이 내용은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일곱 겹으로 된 난간과 일곱 겹 나망과 일곱 겹 가로수가 있는데, 금 · 은 · 청옥 · 수정 등 네 가지 보배로 두루두루 둘러 싸여 있으므로 그 나라를 또한 극락이라 하느니라"라고 설명돼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름답게 장엄된 가로수의 모습을 통해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무량수경>에는 가로수의 아름다움으로 극락세계를 더욱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무량수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그 국토에는 칠보로 된 갖가지의 나무가 온 세계에 꽉 차 있는데, 금으로 된 나무, 은으로 된 나무, 유리나무, 파려나무, 산호나무, 자거나무들이 있으며, 혹은 두 가지 보배, 혹은 세 가지 보배에서 일곱 가지 보배가 합해 이뤄졌느니라. 금 · 은 나무에는 금과 은으로 된 잎과 꽃, 열매가 열리고, 유리 나무에는 파려의 꽃과 열매, 보배 나무는 자거를 뿌리로 하고 자금의 줄기와 백은의 가지, 유리의 줄기에는 수정의 잎과 산호 꽃, 마노의 열매로 됐다. 이와 같이 칠보가 서로 번갈아 뿌리와 줄기가 되고 가지와 잎과 열매가 된 보배 나무들이 극락세계에 가득하느니라. 그 찬란한 광채는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다. 맑은 바람에 보배 나무가 살랑거리면 다섯 가지 소리가 미묘하게 울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느니라."

<아미타경>의 내용과 <무량수경>의 내용을 두루 살펴보니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감동을 애니메이션, 게임이나 판타지 세계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템플스테이 체험 교육 마련한다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불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바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불경의 재해석이요, 새로운 포교의 방법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 4도 칠보난순라망행수토장엄(七寶欄楯羅網行樹土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